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 새해 인사 |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정책 완화흐름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수출 증가세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1%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등 여건 개선으로 1.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IT 경기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2.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부진의 여파로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 산업 회복에 힘입어 2.2%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는 48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은 디지털·AI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른바 ‘대전환의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AI 전환, 경제안보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이슈에 대한 선제적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성장 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권남훈

세계 경제, 금융정책 변화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불확실성은 확대

2024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금리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전반적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은 상반기까지 고용 호조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연 3%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일본은 수출 부진 속에서도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반면, 유로존은 제조업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중국 경제는 1분기 5%대 성장 이후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도와 브라질 또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동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안정과 통화정책 완화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와 고용의 둔화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정책이 내수 둔화를 제한하며 2024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고물가에 대응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으로 내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 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일부 성장동력을 제공하면서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경제는 역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내수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제조업 경기 침체로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수와 외수가 모두 약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하강을 제한하며, 2024년보다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5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 압력과 정책적 완화 효과가 혼재된 가운데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지정학적 갈등 완화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수출이 둔화되는 한편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

2024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과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적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뎠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축 부문의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졌다.

2025년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겠지만, 수출 증가세 유지와 민간 소비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1%의 성장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여건 개선으로 1.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금리 인하 등의 긍정적 영향을 받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선행지표 부진의 여파로 0.9%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IT 전방산업 회복과 반도체 호조로 2.2%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 규모는 48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IT 경기 회복 속도는 주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편적 관세 부과와 같은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경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대전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전 세계는 디지털·AI(인공지능)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로 국제 분업 체계의 변화와 첨단산업 간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와 기존 장치산업의 성숙화가 맞물리며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방식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도모할 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핵심 자원과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바탕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외교 전략을 마련하여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후위

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확산은 물론,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 체계의 강화, 그리고 녹색 금융 활성화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는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열쇠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신산업 발굴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활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정책이 요구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 재정 배분을 통해 산업 육성, 공공 R&D(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대전환 시대의 도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과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 기업, 정부가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과 협력을 지속한다면, 도전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될 것이다. 새해 을사년은 우리 경제가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